

藏書閣 所藏文書を 통해 본 19세기 말 朝鮮王朝의 對中國外交

權赫秀(한국학중앙연구원 문학박사,
중국 東北師範大學 歷史文化學院 교수)

1. 들어가는 말
2. 『北洋衙門談艸』의 기본내용 및 관련사실
3. 『北洋大臣衙門筆談』의 기본내용 및 관련사실
4.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19세기말부터 근대화의 시련을 겪기 시작한 조선왕조는 중국 청왕조와 전통적 조공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신형 일본 및 구미열강과 근대적 조약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전통과 근대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성격의 국제관계체제를 상당기간 함께 수용해왔다. 바로 위와 같은 과도기적 역사현상에 대하여 근대한국의 개화인사 유길준은 일찍 1880년대에 이미 “양절체제(兩截體制)”라는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면서 당시 조선왕조의 “현실적 대외정책”으로서 중국 청왕조에 대한 일종의 “자주적 동맹론”을 주장하였다.¹ 한편 지금까지 일본과 한국학계의 原田環, 鄭容和 등 연구자에 의해 19세기 말 조선왕조의 위와 같은 “양절체제”적 국제질서하의 對中國 외교에 대한 연구가 약간 있어왔지만² 그 실제적 내막에 대한 사실적인 접근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당시 “양절체제”적 대중국외교의 실체를 밝혀줄 수 있는 구체적 사료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발견된 天津駐劄督理通商衙門³ 관련 외교문서 두 건을 중심으로 19세기 말 당시 조선왕조 대중국 외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단편적으로나마 살펴보고 하는데, 논의의 초점은 여전히 최근년간 필자가 줄곧 관심 해온 19세기 말 한중관계의 근대적 전환과정에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필자는 일찍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에서 19세기말 조선왕조 天津駐劄督理通商衙門의 대중국외교문서 두 건을 발견하였는데, 그 구체적 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1. 장서각소장 天津駐劄督理通商衙門 외교문서 2건의 기본상황⁴

¹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정용화, 『문명의 정치사상: 유길준과 근대한국』, 문학과 지성사, 2004년 6월, 213-225쪽 참조.

² 原田環, 「朝・中「兩截體制」成立前史-李裕元と李鴻章の書翰を通して」, 『朝鮮の開國と近代化』, 廣島: 溪水社, 平成9年2月, 191-218쪽; 정용화, 「전환기 자주외교의 개념과 조건: 19세기 후반 대청외교의 이론적 고찰」, 『국제정치논총』 제43집 2호, 2003년 여름.

³ 天津駐劄督理通商事務의 경우 1883년 설치 당시 駐津大員으로도 불렸다가 후에 天津駐劄督理通商事務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청정부 측 문헌의 경우 대개 駐紮天津督理通商事務로 기록되어 있는데 “駐劄”과 “駐紮”은 그 의미 상 별다른 큰 차이가 없으며 당시 한중 두 나라 및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서양의 근대적 외교사절제도 중 公使제도를 수용하면서 나타난 번역의 문제에서 비롯된 습관적 용어의 차이로 이해된다. 坂野正高, 『近代中國政治外交史研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73년, 48쪽 참조. 따라서 서술의 편의상 본고에서는 처음부터 “天津駐劄督理通商事務” 및 “天津駐劄督理通商衙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⁴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資料調査室編,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년,

항 목 번 호	原表題	문 서 형 태	문서분량	작성시기	주 요 내 용	藏書印
1	北洋衙門談艸	寫本	1冊19張,半郭,半葉9行 20字	1884년 5월	北洋衙門談艸 등 3건	藏書閣 圖書印
2	乙酉正月北洋大臣衙門筆談	楮紙 寫本	2卷1冊18 張,半郭 半葉6行25 字	1885년 3월	卷1:北洋衙門筆談; 卷2:海關道署筆談	藏書閣 圖書印

한편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 史部 雜史類의 위 두 문서관련 등록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오류를 지적할 수 있다. 먼저 『北洋衙門筆談』으로 등록된 상기 2번 문서 즉 『乙酉正月北洋大臣衙門筆談』(이하 『筆談』으로 약칭)을 “魚允中撰”으로 기록한 것은 사실 “南廷哲撰”의 잘못이다. 말하자면 그 문서는 어윤중이 아닌 남정철이 이홍장 등 청정부 관계자들과 청나라 天津에서 나눈 筆談의 기록인즉 이에 대한 자세한 고증은 다음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전개하기로 한다. 둘째로 1번 문서 즉 『北洋衙門談艸』(이하 『談艸』로 약칭함)의 작성시기를 고종22년 즉 1885년으로 잘못 추정하였는데 사실은 그보다 한해 앞선 1884년 4월 즉 고종21년 4월이었다. 실제로 위 목록에서 상기 두 외교문서의 작성자 및 작성시기를 모두 대략 추정해두었는데 그 원인은 물론 이들 외교문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역사배경과 사실을 제대로 고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상기 天津駐劄督理通商衙門 관련 두 외교문서 사본에 한결같이 “藏書閣圖書印”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비밀외교문서로 취급되어 조선왕조의 궁중에 秘藏되어 있다가 일제시기 李王職 도서관 “藏書閣”을 거쳐 오늘까지 전해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⁵ 상기 두 외교문서 사본이 지금까지 학계의 관심과 조명을 전혀 받아오지 못한 것도 위와 같은 사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상기 天津駐劄督理通商衙門 두 외교문서는 본고에 의해 처음으로 학계에 소개되고 또한 학술적 조명을 받게 되는 셈이다.

2. 『北洋衙門談艸』의 기본내용 및 관련사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882년 10월 체결된 『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 및 그후 속속 체결된 『奉天與朝鮮邊民交易章程』(『中江貿易章程』), 『吉林朝鮮商民隨時貿易地方章程』(『會寧通商章程』)에 의해 한중 두 나라는 정치적 차원에서 전통적 조공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경제적 차원에서 근대적 통상관계를 전개하면서 이른바 “政經分離”의 과도기적 방식으로 한중관계의 근대적 전환을 시작하였다.⁶ 『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국 청정부는 北洋通商大臣의 명의로 商務委員을 조선의 각 개항장으로 파견, 상주시켜 조선에 있는 “中國商民”들을 보호하고 조선왕조 측에서는 국왕의 명의로 天津에 “大員”을 파견하고 아울러 중국 내 여러 개항장으로 商務委員을 상주시키게 되어 있다.⁷ 바로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해 중국 청정부는 1883년 10월부터 “總辦朝鮮各口交涉商務委員”의 명의로 陳樹棠을 서울에 상주시키고 나아가서 인천, 부산, 원산 등 개항장에도 중국 상무위원을

52쪽.

⁵ 千惠鳳 외, 『藏書閣의 歷史와 資料的 特性』,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년 5월 초판 참조.

⁶ 金鍾圓, 『근세동아시아관계사연구-朝淸交涉과 東亞三國交易을 중심으로-』, 도서출판 혜안, 1999년, 316-350쪽; 권혁수, 『19世紀末 韓中關係史研究-李鴻章의 朝鮮認識과 政策을 중심으로』, 백산자료원, 2000년, 113-140쪽 참조.

⁷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編, 『淸季中日韓關係史料』(이하 『關係史料』로 약칭함) 第3卷,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72年, 989-993쪽; 交涉通商事務衙門編, 『中朝約章合編』, 韓國學中央研究院藏書閣소장; 國會圖書館立法調查局編, 『舊韓末條約彙纂』 下卷, 397-398쪽.

파견하였다.⁸ 그리고 조선왕조 역시 1883년 11월 22일에 天津駐在 大員을 임명하였는데, 당초 임명한 金善根의 身病사유로 3개월 후의 1884년 2월 22일에 처음 參贊官으로 임명하였던 南廷哲을 改差함으로서 남정철은 사실상 초대 天津駐在 大員으로 되었다.⁹ 이에 남정철은 從事官 朴齊純, 書記官 成岐運 등 일행과 더불어 1884년 4월 12일에 서울에서 高宗을 辭陞한 뒤 天津으로 출발하여 같은 달 24일에 천진에 상주하고 있는 청정부 直隸總督 겸 北洋通商大臣 李鴻章에게 자신의 임명 및 파견에 관한 高宗 명의를 咨文을 전달함으로서 사실상 공식 업무를 개시하였다.¹⁰ 남정철의 임명 및 천진 상주는 바로 이른바 “양절체제”의 과도기적 국제질서 속에서 중국에 대한 새로운 근대적 통상외교의 시작을 의미한다.

당시 이홍장은 청정부의 대한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었으므로¹¹ 조선왕조 대중국외교의 최고 대표 격인 남정철의 직접 교섭상대이기도 하였다. 상기 『談艸』의 내용은 바로 남정철이 천진에 도착한 뒤 이홍장 및 그 주변인물들과 나눈 필담 기록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북양통상대신아문에서 이홍장과 만나 자신의 업무내용 및 당시 한중관계의 여러 현안에 관한 필담 기록 및 이홍장의 막료출신으로 당시 天津海關道 盛宣懷와 필담기록 그리고 내방한 만주인 額勒精額과 필담기록 등 3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홍장과의 필담 기록은 총 20張으로 된 『談艸』중 무려 12張 즉 60%의 분량을 차지하는데, 필담 기록 첫 부분에 “今十九日”이라고 한 것은 필담 과정에서 러시아 공사 웨베르의 육로통상교섭¹² 등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高宗21년4월19일 즉 1884년 5월 12일로 추정되는데, 바로 남정철이 천진에 부임한지 한 달도 안 되는 시점이었다. 당시 남정철은 조선정부의 자문 2통 및 국왕 高宗의 “御札” 1통¹³을 전달하기 위해 찾아온 賚奏官 李用俊과 함께 북양통상대신아문으로 찾아가 이홍장을 만났는데, 이홍장은 먼저 청나라 주재 러시아 공사 웨베르(Karl Waeber, 韋貝)가 조선을 방문하여 육로통상관련교섭을 제기할 것이라는 외교정보를 전달하면서 조선정부의 사전 준비를 촉구하였다.¹⁴

이에 남정철은 이홍장의 용의주도한 외교적 배려를 감사하는 한편 조선정부에서 나름대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대답하였고, 이어서 자신이 천진으로 상주하게 된 것은 오로지 “商務”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요즘처럼 천하가 多事하여 옛날과 전혀 다른 시점에 한중 두 나라가 더욱 긴밀히 연락하여 한마음으로 “共濟”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면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홍장을 만나 긴요한 담화를 나눌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말하자면 남정철은 단순한 조선왕조의 중국주재 통상관련 대표뿐만 아니라 사실상 중국주재 최고 외교대표의 자격으로 이홍장과 일종의 카운터 파트너(counter partner) 관계의 수립을 요청한 것이다.

⁸ 權赫秀, 『陳樹棠在朝鮮的商務領事活動與近代中朝關係(1883年 10月-1885年 10月)』, 『社會科學研究』2006年 第1期. 진수당의 직함 역시 후에 외교적 권한을 의미하는 “交涉”이라는 두 글자를 새로 추가한 것이다. 그에 앞서 이홍장과 청정부에 의해 조선국왕 高宗의 외교통상관련 자문 역으로 파견된 馬建常의 경우 역시 위와 같은 맥락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權赫秀, 『馬相伯在朝鮮的顧問活動(1882年 11月-1884年 4月)』, 『近代史研究』 2003年 第3期 참조.

⁹ 『高宗實錄』 高宗20年 10월 23일, 『日省錄』 高宗21年 1월 27일. 그후 1886년 3월 26일 내무부의 요청에 따라 天津駐在 大員의 공식명칭은 天津駐紮督理通商事務로 개칭되었으므로 본 고에서는 편의상 처음부터 천진주찰독리통상사무로 표기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고증은 金壽岩, 『韓國의 近代外交制度研究-外交官署와 常駐使節을 중심으로』, 서울대 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년 2월 참조.

¹⁰ 『高宗實錄』 高宗21年 3월 17일; 『關係史料』 第3卷, 1358-1359쪽.

¹¹ 이홍장과 근대한국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權赫秀, 『19世紀末 韓中關係史研究-李鴻章의 朝鮮認識과 政策을 중심으로』 참조.

¹² 청나라 러시아 공사 웨베르가 수호통상조약 교섭 차 내한한 것은 1884년 6월 23일이고 교섭결과 같은 해 7월 7일에 韓露수호통상조약이 서울에서 조인되었다. 金源模編著, 『近代韓國外交史年表』, 檀大出版部, 1984년, 112-113쪽 참조.

¹³ 상기 咨文 2통과 “御札” 1통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는 위 문서에서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그 무렵 즉 1884년 6월 중순경 청정부 禮部로 英韓수호통상조약의 체결을 통보하는 조선정부의 咨文 및 임오군란 당시 조선으로 출동한 청군의 서울상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高宗명의를 上奏文이 접수된 것으로 보아 바로 상기 咨文과 “御札”(사실은 상주문)로 추정된다. 『關係史料』 第3卷, 1364-1368쪽, 1399-1400쪽, 1405-1408쪽 참조.

¹⁴ 필담의 내용은 모두 상기 『談艸』에서 인용한 것으로 더 이상 일일이 밝히지 않는다.

이에 이홍장은 긴급 기밀사항의 경우 수시로 자신을 찾아와 필담을 나눌 수 있고 나머지 일반사항의 경우 자신의 부하인 天津海關道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면서 남정철의 요구를 그대로 수락해주었다. 따라서 남정철은 임오군란 당시 청군의 조선출동 등을 통해 보여준 조선왕조에 대한 청정부의 각별한 배려에 대한 국왕 고종 및 조선정부의 감사의 뜻을 장황하게 전달하면서 특히 고종과 조선정부가 결코 청정부에 대한 事大的 조공관계를 이탈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이홍장은 자신이 과거 조선정부에게 구미열강(“泰西各國”)과 수교통상 하도록 권고한 것은 바로 일본의 조선침략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최근 외세의 부추김을 받은 “신당무리(新黨一輩)”들이 “自主”를 부르짖으면서 “事大”관계를 이탈하려는 움직임에 각별히 경계하도록 요구하였다. 여기서 이른바 “신당무리”는 바로 당시 조선왕조의 정치무대에 바야흐로 등장하고 있는 개화파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말하자면 이홍장과 청정부는 일찍부터 개화파세력에 의한 조공관계 이탈가능성을 심각하게 경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남정철은 당시 조선왕조 정치내막과 관련된 "신당무리"에 관한 언급은 일절 자제하고 곧바로 필담의 초점을 통상업무로 바꾸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현재 조선의 “商務”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실정인데 과거 서양인 한 사람에게(독일인 출신의 뮐렌도르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 전적으로 의지하여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므로 근대적 통상문제에 대한 청정부의 자세한 지도를 요청한다. 둘째, 근대통상관련 구체적 법칙과 규정을 문의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인쇄물로 간행한 것이 있으면 제공해주도록 요청한다. 셋째, 중국 내지로 잠입하여 인삼을 밀매하는 조선인의 단속을 약속하는 한편 천진주차독리통상아문 소속 인원의 중국 출입국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줄 것으로 요청한다. 넷째, 자신의 업무상 자주 귀국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는데 그에 대한 출입국절차 및 교통편의제공을 요청한다. 이에 이홍장은 구체적인 사항은 자신의 막료출신으로 당시 천진해관도를 맡고 있는 성선회와 협의하도록 하면서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어서 남정철은 당시 중국 保定에 억류되어 있는 대원군에 대한 국왕 고종의 걱정과 관심을 전달하면서 특히 중국 상해에서 발행되는 『申報』에서 대원군의 같은 해 10월 조기송환가능성을 보도한 내용의 진실여부를 심각하게 타진하였다. 이에 이홍장은 이른바 10월 조기송환설은 헛소문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는 한편 조선국왕과 정부가 정치를 잘 다스리도록(“勵精圖治”) 요구하였는데, 그 중 “왕비” 즉 민비 관련 대목은 그냥 “云云”으로만 적혀 있어 일부 민감한 또는 자극적인 대화내용이 남정철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정철은 얼마 전 서울서 발행되는 『漢城旬報』에서 서울주둔 청군과 관련된 오보기사내용을 해명하면서 천진주차독리통상아문의 현판글씨를 직접 써주도록 요청하여 이홍장의 양해 및 허락을 얻어내었고 필담은 결국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時顏色甚和”) 끝났다고 한다.

두 번째 필담은 당시 천진해관도 盛宣懷가 같은 해 6월 9일 오후 7시경 천진주차독리통상아문으로 남정철을 내방하면서 이루어졌다. 성선회(1844-1916)의 字는 杏蓀, 또는 幼勸, 號는 愚齋. 止叟로서 江蘇省 武進사람인데 이홍장의 막료출신으로 일찍 1870년대부터 輪船招商局, 湖北開採煤鐵總局, 中國電報總局 등 근대적 기업의 창설작업을 주도해온 인물이었다.¹⁵ 바로 얼마 전 천진해관도 周馥의 病暇로 천진해관도 대리를 맡게 된¹⁶ 성선회가 취임인사차 찾아와 이루어진 이번 필담의 내용은 주로 예의적인 인사말이었고 그중 주목할만한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이었다. 첫째, 남정철이 성선회에게 취임 후 천진주재 각국 외교관(총영사 또는 영사)들을 모두 예방하였는가고 물었는데, 말하자면 남정철 자신은 이미 그들과 모두 만나본 것으로 들리는 구절이다. 즉 남정철은 사실상 조선정부 외교대표의 신분으로 천진주재 각국 외교관들을 만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성선회는 청나라 주재 이태리 공사 및 러시아 공사가 속속 조선으로 통상교섭 차 출발할 것이라는 정보를 전달하면서 그에 관한 대응 특히 러시아의 육로통상교섭에 대한 사전대비를 촉구하였다. 앞서 이홍장과

¹⁵ 盛宣懷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서를 참조할 수 있다. Feuerwerker, Albert, *China's Early Industrialization: Sheng Hsuan-huai(1844-1916) and Mandarin Enterpris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58; 夏東元, 『盛宣懷傳(修訂本)』,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1998年.

¹⁶ 夏東元, 『盛宣懷傳(修訂本)』, 441쪽.

필담에서도 각별히 강조되었던 내용으로 그만큼 당시 이홍장과 청정부에서 러시아의 조선 진출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남정철은 자신의 통상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성선회의 적극 협조를 부탁하였고 이에 성선회도 快諾하였는데, 바로 이홍장과 청정부의 대조선정책이 적극간섭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필담은 같은 해 6월 15일 오전 10시경 천진주차독리통상아문을 예방한 만주인 額勒精額과 남정철이 나눈 것이다. 스스로 四川省 體防 출신이라고 밝힌 額勒精額은 그 이름으로 보아 만주족 출신의 士大夫로 보였는데, 서양의 학문을 비롯하여 서양 기계 및 서양 포도주 등 무릇 서양과 관련된 것은 모두 싫어하는 보수인사로서 필담 내용 중 별로 특기할 만 한 것이 없었다. 『담초』의 마지막 페이지에 남정철이 고종에게 올린 上疏로 보이는 총 139자의 짧은 보고서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인즉 이홍장을 통해 청정부에서 새로 건조한 윤선 수 척을 임대하여 조선의 군사 및 민용 업무에 활용하자는 건의이었다. 이러한 보고내용이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고 또한 첫 번째 필담 즉 이홍장과 필담 내용 중 민비관련 대목이 일부 삭제된 것으로 보아 『담초』는 당시 남정철이 자신의 업무내용 즉 대중국 통상외교섭과 관련하여 고종에게 보내는 일종의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談艸』에 실린 남정철과 이홍장, 성선회 및 액특정책의 필담내용은 이홍장과 성선회 관련문서¹⁷ 및 『淸季中日韓關係史料』를 비롯한 청정부 관련문서에도 전혀 수록되어 있지 않아 말하자면 이홍장과 성선회 및 중국근대사연구와 관련하여 새로 발견된 중요사료이기도 하였다.

3. 『北洋大臣衙門筆談』의 기본내용 및 관련사실

모두 2권 1책 18장의 분량인 『筆談』은 남정철과 이홍장의 1차 필담내용이 12장을 차지하고 나머지 6장은 남정철과 청정부 천진해관도 周馥의 2차 필담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그중 남정철과 이홍장의 필담은 “乙酉正月 四日 北洋大臣衙門筆談”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필담의 시간과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바로 1885년 3월 10일 천진의 북양통상대신아문에서 진행된 필담이었다.

이번 필담은 바로 4개월 전의 1884년 12월 4일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갑신정변 이후 남정철이 처음 이홍장과 만나는 자리이었는데, 남정철은 먼저 자신이 지난 1884년 8월 복명 차 귀국한 뒤 서울에서 갑신정변을 당하였고 그후 같은 해 12월 22일에 부사로 임명되어 북경을 방문한 뒤 1885년 3월 7일에야 천진으로 귀임하였고 곧이어 보정으로 찾아가 그 곳에 억류중인 대원군을 예방할 예정이라고 소개하였다. 한편 남정철은 지난해 말의 갑신정변은 “五百年 禮義之邦”에서 그야말로 전대미문(亘古所未有)의 “逆變”이라고 한탄하면서 조선주둔 청군의 “救衛宗社” 및 청정부와 이홍장의 사후수습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다. 이에 이홍장은 갑신정변 당시 남정철의 동향을 문의하였고 남정철은 갑신정변 전후 조선왕조 정치내막 및 대일관계 내막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특히 일본 공사 竹添進一郎에 의한 갑신정변 도발은 사실 일찍부터 준비되어 왔고 또한 그 목적은 결국 청정부를 겨냥한 것이므로 일본의 침략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한중 두 나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홍장은 남정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체로 동감하면서 조선왕조에서 향후 내외정치에 더욱 노력하도록 주문하였지만 남정철이 곧이어 제기한 갑신정변의 사후수습과 관련된 한일교섭의 불평등문제 및 일본으로 망명한 김옥균 일행의 인도요구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회답은 회피한 채 곧바로 보정에 억류되어 있는 대원군에 대한 자금지원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남정철은 1882년 10월부터 1885년 초 현재까지 이미 대원군에게 무려 은 13,000냥을 보내주었고 이번에도 은 500냥을 보낼 예정이라고 대답하였는데, 이홍장은 청정부에서도 달마다 은 50냥씩 지원해주고 있다면서 향후 대원군에 대한 자금지원을 후하게 해주도록 요구하였고 남정철은 귀국 후 고종에게 전달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위와 같은 필담내용은 청나라 억류시절 대원군의 경제사정 및 그에 대한 조선정부 및 청정부의 경제적 지원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사료로서 주목된다.

¹⁷ 吳汝綸編, 『李文忠公全書』 166卷, 金陵: 光緒三十一年(1905)刊; 盛宣懷, 『愚齋存稿初刊』 100卷, 民國十九年(1920)刻; 陳旭麓等主編, 『盛宣懷 案資料選輯』 之一(辛亥革命前後), 之二(湖北開採煤鑛總局. 荊門鑛務總局), 之三(甲午中日戰爭), 之四(漢冶萍公司) 외,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0-1984年.

이어서 남정철은 중강무역의 세금인하, 인삼관세 인하 및 중국상인의 서울 개전, 한중 국경선의 재 답사 등 구체적인 현안문제를 일일이 제기하였는데, 이홍장은 이미 청나라 황제의 윤허를 받아 제정된 규정내용은 변경시킬 수 없다고 고집하면서 인삼관세 인하 및 국경답사 등 사안과 관련하여 일단 예부를 통해 청정부로 교섭요구를 제출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요컨대 남정철의 적극적인 교섭태도에 비해 이홍장은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대응하였는데, 그 원인은 “양철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청정부가 대조선정책과 관련하여 이홍장의 권한은 주로 “洋務” 즉 서양 및 일본과 관련된 사항에 국한되었고 나머지 조공관계 관련 업무는 여전히 청정부 예부 소관으로 되어 있었다.¹⁸ 이처럼 구미열강 및 일본과 근대적 조약관계를 수립하면서 한국 등 주변국가에 대한 조공관계를 계속 고집하고 심지어 한국과 경제적 차원에서 근대적 통상관계를 전개하는 한편 정치, 외교적 차원에서 조공관계체제를 오히려 더 강화하려는 것이 바로 이른바 “하나의 외교 두 가지 체제(one diplomacy two system)”라는 과도기적 현상과 정책이었다.¹⁹ 따라서 이홍장은 한국과 관련된 대외적 통상 및 외교 등 문제를 협의, 결정할 수 있을 뿐 한중 조공관계의 기본 틀과 관련된 국경문제 및 조공무역 특히 청나라 황제의 재가를 거친 관련문제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었으므로 남정철이 제기한 상기 제반문제에 명확한 답변을 줄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이홍장은 일찍 1981년부터 이미 조선국왕 고종과 자문을 서로 주고 받아왔고 1984년부터 또한 직접 서신왕래를 시작해왔던 바 한중관계의 중대한 사항은 당연히 남정철이 아닌 국왕 고종을 상대로 협의하기 마련이었다. 실제로 이번 필담 직후 이홍장은 고종에게 서신을 보내 당시 한국의 내정외교와 관련된 여섯 가지 현안문제를 자세히 언급하였고²⁰⁾²¹⁾ 이 서신은 바로 남정철에 의해 서울로 전달되었다. 말하자면 청정부의 위와 같은 “하나의 외교 두 가지 체제”의 과도기적 현상과 정책은 바로 조선왕조의 “양철체제”적 대외관계현실과 일종이 表裏關係를 이루고 있었다. 즉 천진주차독리통상사무를 통한 조선왕조의 대중국외교는 어디까지나 이른바 “양철체제”의 기본 틀 속에서 전개된 것으로서 그 기본 틀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전통적 조공관계를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처음부터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남정철의 위와 같은 외교노력은 처음부터 상당한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나머지 두 필담은 각각 “海關道署筆談” 및 “又關署談草”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海關道署筆談”은 담화내용을 조목별로 정리한 요점이었고 “又關署談草”만 실제 필담내용을 기록한 것이었다. 후자의 경우 필담의 대상이 “周”로 기록되어 바로 당시 천진해관도를 맡고 있는 周馥으로 파악할 수 있고 전자의 내용 및 “海關道署筆談”이라는 제목에서 이미 天津海關道署에서 진행된 필담으로 밝혀져 있는 것으로 보아 역시 주목과 진행된 필담으로 추정된다. 周馥(1837-1921)은 安徽省 建德(오늘의 東至)출신으로 자는 玉山, 별호는 蘭溪로서 일찍 1860년대부터 이홍장의 막료로 활약해왔고 특히 1870년대 이후 이홍장의 심복막료로서 이홍장의 국내외 정치, 외교, 통상 등 업무에 깊이 관여해왔으며, 1885년 당시 천진해관도를 맡고 있었다.²²⁾ 천진해관도서에서 남정철과 진행된 상기 두 차례의 필담은 그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남정철과 이홍장의 상기 필담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그 내용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두 차례 필담이 서로

¹⁸ 故宮博物院編,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二, 「總理各國事務衙門奏朝鮮宜聯絡外交變通舊制摺」, 31-31쪽; 권혁수, 『19世紀末 韓中關係史研究』, 72-73쪽; 權赫秀, 「李鴻章與朝鮮國王高宗往來咨文及書信考(1881-1894)」, 南京大學韓國研究所編, 『第五屆韓國傳統文化國際研討會論文集-中韓交流』, 香港: 華廈文化藝術出版社, 2004年 12月.

¹⁹ 權赫秀, 「馬相伯在朝鮮的顧問活動」, 『近代史研究』, 2003年 3期; 權赫秀, 「關於近代中朝關係史的幾點認識」, 『中國朝鮮史研究』第1輯, 香港: 香港社會科學出版社, 2004年 6月 第1版; 權赫秀, 「陳樹棠在朝鮮的商務領事活動與近代中韓關係」, 『社會科學研究』, 2006年 1期.

²⁰⁾ 『李文忠公全書·譯署函稿』卷十七, 「條議朝鮮事 附件二: 覆朝鮮國王」, 33-34쪽; 권혁수, 『19世紀末 韓中關係史研究』, 169-170쪽; 權赫秀, 「李鴻章與朝鮮國王高宗往來咨文及書信考(1881-1894)」, 『第五屆韓國傳統文化國際研討會論文集-中韓交流』 참조.

²¹⁾ 『高宗實錄』, 高宗二十二年九月二十二日.

²²⁾ 周馥에 관한 연구는 汪志國, 『周馥與晚清社會』(合肥: 合肥工業大學出版社, 2004年 6月 第1版)를 참조할 수 있고, 周馥의 문집으로 『周愨慎公全集』 39卷 및 『秋浦周尙書(玉山)全集』이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상기 두 차례 필담에서 주로 중국상인의 漢城開棧문제, 중국 수출 인상의 관세 인하문제 및 중강무역의 관세인하문제 등 세 가지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그 성격상 앞서 이홍장과 필담에서 제시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일종의 실무회담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우관서담초”에서 주북은 일단 인상 등 대중국수출품목의 관세인하문제와 관련하여 일단 조선정부측에서 국왕의 상주문을 통한 공식 채널로 요청해 올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혀줌으로서 나름대로 한국 측의 요구를 배려해주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바로 이번 필담의 마지막 부분에 “魚一齋” 즉 魚允中의 이름이 두 번 거론되는데 장서각문서목록에서 이 문서를 어윤중의 문서로 잘못 등록한 것도 결국 여기에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필자의 조사결과 상기 이홍장 및 주북과의 필담내용은 모두 이홍장, 주북 및 청정부 관련문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본으로서 이홍장 및 중국 근대사연구에도 소중한 사료로 된다.

4. 나가는 말

위와 같은 검토를 통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北洋衙門談艸』 및 『北洋大臣衙門筆談』은 각각 1884년 5월 12일과 1885년 3월 10일에 조선정부의 천진주차독리통상사무 남정철이 중국 천진에서 청나라 북양통상대신 이홍장 및 그의 막료출신 부하 성선희, 주북 등과 나눈 필담기록으로서 19세기 말 이른바 “양철체제”의 과도기적 대외관계체제에서 조선왕조의 대중국외교와 관련된 중요한 외교사료로 확인되었다. 한편 후자의 경우 장서각 소장도서목록에 어윤중의 문서로 등록된 것으로 잘못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기 필담자료의 내용으로 보아 당시 초대 천진주차독리통상사무로 있던 남정철은 천진에서 사실상 조선정부의 중국주재 최고 외교대표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는 이홍장과 필담에서 자신이 오로지 통상문제만을 위해 청나라로 파견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혀두었고 실제로 이홍장 등과의 필담에서 통상문제 외에도 고종의 지시에 의해 양국의 국경답사문제, 외교협력문제, 청나라 억류 중인 대원군에 대한 처우문제 및 갑신정변의 사후수습문제 등 중요한 외교현안문제를 직접 논의하였으며 또한 조선정부 외교대표 신분으로 천진주재 각국 외교관들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금까지 학계에 전혀 공개된 적이 없는 상기 필담자료는 남정철 및 천진주차독리통상사무 특히 갑신정변전후 한중관계사의 내막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사료 일뿐만 아니라 이홍장 및 19세기말 중국근대대외관계사의 연구에도 중요한 외교사료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한국외교사연구에 있어서 지금까지 1887년 7월 駐日辦理大臣 閔泳駿의 파견을 근대한국 최초의 해외상주 외교대표로 간주해왔다.²³⁾ 그러나 상기 필담자료 및 그와 관련된 역사사실에 대한 위와 같은 초보적 고찰에 의하면 1884년 4월에 천진으로 부임한 천진주차독리통상사무 남정철은 근대한국 최초의 해외상주 외교통상대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필자가 서울대 규장각 소장문서에서 찾아 본 천진주차독리통상사무 관련사료에서는 천진주차독리통상사무아문을 근대한국 최초의 해외상주 외교대표기관(“本國出使常駐之始”)으로 분명하게 밝혀두었다.²⁴⁾ 한편 중국외교사의 경우 『李文忠公全書』 및 『清季中日韓關係史料』 등에 천진주차독리통상사무의 활동과 관련한 단편적인 사료만 남아있을 뿐 중국상주 외국대표관련 기록²⁵⁾에는 아예 수록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도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이 문제는 근대한국과 중국 외교사 및 근대한중관계사 연구와 직접 관련된 중요한 내용으로서 앞으로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²³⁾ 金源模 編著, 『近代韓國外交史年表』, 289쪽; 金壽岩, 「韓國의 近代外交制度研究-外交官署와 常駐使節을 중심으로」, 참조. 민영준의 경우 먼저 임명된 이현영이 병으로 사직하여 새롭게 임명되었으므로 사실상 초대 주일공사로 볼 수 있다.

²⁴⁾ 「駐津督理公署章程底稿」, 서울대 규장각 소장.

²⁵⁾ 故宮博物院明清 案部, 福建師範大學歷史係 編, 『清季中外使領年表』, 北京: 中華書局, 1985年 참조.

